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3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에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7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33 호

"신앙행위에 과세라니…"

천주교 묘지 세금부과 '파장'…종교계 반발 움직임

불교 납골당 운영에 영향 미칠듯

서울고법이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묘지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는 6월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대표이사 김수환 추기경)이 종토세를 부과한 경기 포천군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주교측이 신도들에게서 받은 묘지사용료가 묘지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최소한도의 변상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유료사용에 해당하는만큼 종토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교재단의 토지에 대해 과세를 면제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종토세 과세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종교계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에대해 조계종총무원 재무부는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부과는 당연하나 그에 앞서 신앙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납골당이 유료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골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 스님은 "유료사용이더라도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며 "죽은 이의 명복과 천도를 비는 신앙행위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골당에 대한 세금부과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주교측도 공원묘지에 대한 사용료로 신도들에게서 받고 있는 돈은 묘지조성 및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비이지 묘지운영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과 관련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26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월주스님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특수전 사태 국방장관 공식사과

조계종 총무원 방문…법규개정·보완등 다짐

육군 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과 관련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6월26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국방부 장관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공식 사과했다. 〈관련기사 3면〉

김동진 장관은 이자리에서 "금번 육군특수전학교 종교편향사례와 관련하여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군종발전을 위한 현행법규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이번 사건은 반성문을 쓰게하는등 의도적인 인상이 짙다"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국방부는 6월 25일 육군특수전학교 종교편향사례 관련 조치계획 회신에서 ▲편파적인 군종활동 불식을 위한 장관 특별지시 하달 ▲각군 참모총장 지휘서신하달 ▲전국 군종장교 대상 집체교육실시 ▲준 법적 효력을 가진 국방부 훈령제정 ▲종교활동 관련 군인복무규율 개정 ▲관련자 인사조치 계획을 밝혔다.

1寺-1군법당 추진

특수전학교 불교대책위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대책위는 6월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불교탄압을 감시 접수 조사할 수 있는 상시기구로 개편하는 방안과 특수전학교 개선 진척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대책위를 계속 가동키로 했다. 또 차후 군불교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예산확보와 1사(寺) 1군법당 자매결연운동을 벌이는 방침을 확정했다.

사 과 문

금번 육군 특수전학교 종교편향 사례와 관련하여 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전국 불자 및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머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군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되 특정종교에 대한 이해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이러한 종교편향 사례건은 일개인의 종교적 관련과 욕심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완전보장" 원칙에 정면 위배되며, 이는 우리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는 과오범도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향후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군종 발전을 위해 현행 법규의 제·개정과 보완 그리고 금번 사건의 교훈을 전 장병 및 군종 참교에게 주지시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전국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참군 육성에 더욱 매진코자 하오니 개의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997. 6. 26.
국방부장관 김동진

「한구좌 1천원」 그늘진 곳에 신문 법보시

우연히 접하게된 단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터서 크나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구게를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 알려주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차도록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에는 더욱이나 한마디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간방생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가르침의 사각(死角) 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법보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만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1구좌당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월 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정성으로 만드는 신행지 현대불교신문을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에 보냅시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군·경찰·교도소등에 보급

자동이체·온라인 통해

■ **대상처**: 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각급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및 연변지역 등 해외교민 시설

■ **동참방법**: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 **자동이체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1-0783-830(현대불교신문사)
제일은행 100-20-560799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1-226911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뱅크라인 50-01-124050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월 은행에 가는 부담이 덜어지고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25-0007-820(현대불교신문사)

■ **참여방법**: 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02)737-8881 (영업부)
(02)722-4162 (편집국)

현대불교신문사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송 춘 희

이 걸린다. 돈도 3백불이 전재산이라 3일도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찌할 아무런 도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왜이렇게 됐지하고 되짚다보니 불현듯 1년전 미국에서 숭산스님이 들려주신 법문이 떠올랐다.

"금생의 고통은 전생의 업이다"며 삶이 고난한 사람은 열심히 참회기도를 해서 그 업장을 녹여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특히 나같이 아상에 잡히기 쉬운 사람은 절을 많이 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참회기도로 넘긴 위기

갑자기 수렁에서 빠져나갈 밧줄을 잡은 것처럼 힘이 생겼다. 값싼 모텔에 투숙해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며 절을 했다. 돈이 없어 먹지도 못하고 물만 마셨다. 날이 밝으면 돈없이 대낮의 시간을 보낼수 있는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열심히 '관세음보살' 주력을 했다. 다시 밤이 되면 그 모텔로 가 절을 했다. 3일째 되는 날 숙박비를 내고나니 돈이 거덜났다. 어쩔수없이 다시 대사관을 찾았다. 겁이나 유리문밖에 서 있는데 여직원이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당신은 참 운이 좋다"는 말과 함께 내 신원확인을 전화로 해 영주권을 재발급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미국에 당자마자 절에가 3일 참회기도를 부쳤다. 하루 2천배씩 6천배를 마쳤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노래하는 포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참회의 절을 하라고 노래하듯 말한다.

〈가수·백련불교장학회장〉

"태화쇼핑 살리자"

교계 탄원 잇달아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정태회장 소유의 (주)태화쇼핑 부도사태와 관련 불교계를 비롯한 지역 각계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 등은 6월20일 3백여명의 서명으로 향토기업살리기를 호소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부산지법에 냈다.

'알뜰시장' 우천 관계로
7월 6일 봉은사서 열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 맑고향기좋게모임 · 종단협소비자위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새싹불자에게 양서 2만권 나눠드립니다 16면
社告 불교테마여행 3면 여름탐험학교 17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97 문화유산의 해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